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06. Vol. 17. No. 1. pp. 33~59.

남녀 고교생의 이성교제폭력 실태와 예측요인

양혜원* · 신혜섭**

초 록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남녀 청소년의 이성교제폭력 실태와 예측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이성교제폭력 예방 및 개입에 근거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이성교제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고교생은 전체의 22.6%로 나타났으며, 가해경험과 쌍방경험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경험율을 보였다. 남녀 모두에게서 일방적 가해나 피해에 비해 쌍방경험의 비율이 높았다. 이성교제폭력의 예측요인은 성별에 따라 달라서 남학생의 경우, 폭력허용도, 비행,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이, 여학생의 경우, 성차별적 태도, 폭력허용도, 비행이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예측요인이 가해, 피해, 쌍방경험의 위험율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성차별적 태도는 여학생의 가해경험, 폭력허용도는 남학생의 쌍방경험, 여학생의 가해경험과 쌍방경험, 비행은 남학생의 피해경험과 쌍방경험, 여학생의 가해경험과 쌍방경험,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은 남학생의 가해경험과 쌍방경험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복지 실천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이성교제폭력, 성차별적 태도, 폭력허용도, 비행, 부모 간 폭력 노출, 부모의 신체적 폭력

* 총신대학교
** 동덕여자대학교

Ⅰ. 서 론

사회 전반적으로 남녀관계에 대하여 개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남녀공학을 실시하는 중, 고등학교도 늘면서 이성 청소년 간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성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교류는 청소년기에 시작되므로 이 시기에 이성 친구 간에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는 부부 뿐 아니라 교제하는 미혼 남녀 간에도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기존 연구는 적게는 11.9%에서 많게는 55.7%가 이성교제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했다(김용미1996; 김예정·김득성, 1999b,; 이영숙, 1999; 장희숙·조현각 2001; 서경현 2002; 정혜정, 2003). 이러한 이성교제폭력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와 심리, 사회적 손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성교제폭력은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정폭력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재엽, 1998; 장희숙·조현각 2001; Roscoe & Benaske, 1985).

청소년기는 급속한 성장이 시작되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이러한 발달 정도는 이성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기의 이성 친구와의 관계는 그 친밀도나 기대 수준이 성인과는 다르다. 이성 파트너와의 관계가 더욱 친밀할수록, 또 관계에 대한 낭만적 기대가 클수록 관계상의 갈등 및 폭력이 더욱 증가한다는 연구결과(Magdol et al., 1998; Miller & White, 2003)를 참고할 때, 십대 청소년의 이성교제폭력은 성인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의 이성교제폭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청소년의 이성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관련된 연구도 소수에 불과하다. 반면 외국의 경우에는 Henton 외(1983)의 연구, Roscoe와 Callahan(1985)의 연구를 시작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성교제폭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대상의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Dryfoos, 1990; Jezl 외, 1996; O'Keefe, 1997; Riggs & Caulfield, 1997).

청소년의 이성교제폭력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예측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예측요인에 대한 이해는 예방 및 대처방안 마련에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성차별적 태도나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와 같은 태도 관련 요인, 학교폭력이나 음주와 같은 비행 관련 요인,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 간의 폭력에 노출되거나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등의 가정폭력경험을 주요 예측요인으로 지목해왔다(서경현·이영자, 2001; 김예정·김득성, 1999b; Flynn, 1990; O'Keefe, 1997; Riggs & O'Leary, 1996; Ryan, 1995; Foo & Margolin, 1995; Heather & Vangie, 1997).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청소년 대상의 연구가 많지 않고,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요인들이 청소년의 이성교제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최근 이성교제폭력에 관한 연구에서 주목되는 바는 여성의 가해율과 상호폭력율이 높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화 과정에서 남성이 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부부폭력에서 남성이 주요 가해자인 것과는 달리,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의 이성교제폭력에 있어서는 남녀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김용미·김현옥, 2000; Bernard & Bernard, 1983), 여성이 오히려 더 폭력적인 것으로(서경현, 2002; 장희숙·조현각, 2001; Foshee, 1996; O'Keefe, 1997) 나타난 경우가 많다. 또한 이성교제폭력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가해나 피해를 경험하기 보다는 남녀가 폭력을 서로 주고받아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호폭력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고된다(김예정·김득성, 1999a, c; White & Koss, 1991; Gray & Foshee, 1997). 이는 이성교제폭력 연구에 있어서는 폭력의 가해나 피해경험 뿐 아니라 쌍방경험도 중요시해야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고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이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실태와 예측요인을 살펴보고, 예측요인이 폭력의 가해, 피해, 쌍방경험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이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성별 발생률 차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이성에 대한 폭력 실태를 보고한 연구는 많지 않다.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용미와 김현옥(2000)의 연구에서 11.9%가 신체적 폭력에 대한 가해 혹은 피해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경현(2002)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29.1%, 여학생의 41.9%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대상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용미(1996)의 연구와 장희숙과 조현각(2001)의 연구에서 각각 21.3%, 21.4%, 2개월 이상 지속적인 데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예정과 김득성(1999b)의 연구에서는 40.4%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세-33세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영숙(1999)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42.6%, 여성의 48.9%가 신체적 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로써 조사대상이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 미혼 성인남녀의 20%-50%가 이성교제 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함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경우, Makepeace(1981, 1983)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2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Henton 외(1983)의 연구에서 12%가 이성 간에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Jezl과 동료들(1996)은 그동안의 연구를 포괄하여 분석한 결과, 이성교제폭력 발생률이 적게는 9%에서 많게는 59%에 이fms다고 보고하였다.

성별에 따른 신체적 폭력의 발생 경향을 살펴보면, 최근의 연구들은 교제 관계에서 여성이 남성만큼 공격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폭력 행사에 있어서 남녀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으나(김용미·김현옥 2000; Bernard & Bernard, 1983), 여성이 더 폭력적이라는 연구도 있다(서경현, 2002; 장희숙·조현각, 2001; Foshee, 1996; O'Keefe, 1997; Capaldy & Clark, 1998; O'Keefe & Treister, 1998; Halpern et al., 2001).

이러한 경향은 미혼 남녀 간의 폭력이 상호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의 행동이 상호 호혜적이어서 대화에는 대화로, 폭력에는 폭력으로 반응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김예정·김득성, 1999a; 이영숙, 1998). 실제로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높은 상호폭력율이 확인되었다(김용미, 1996; 김예정·김득성, 1999a; Stets & Henderson, 1991; White & Koss, 1991; Gray & Foshee, 1997). 또한 폭력에 대한 보고율이나 폭력에 대한 인식에 성차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남성은 자신의 폭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를 의식해서 폭력을 축소하여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의 폭력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되지 않고 폭력의 결과로 인한 상대방의 손상도 크지 않기 때문에 여성은 자신의 폭력을 부담 없이 혹은 다소 과장해서 보고하기도 한다는 것이다(DeMaris, 1987; Stets & Henderson, 1991). 또 남성이 여성보다 폭력을 인식하는 수준이 낮고 허용하는 정도가 높아서 자신의 폭력을 최소화하는 경향도 있고, 폭력을 많이 접한 남성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진정한 폭력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장희숙·조현각, 2001).

2. 이성교제폭력의 예측요인

청소년의 이성교제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차별적 태도, 폭력에 대한 허용도, 비행, 부모간 폭력에의 노출,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에 대해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차별적 태도

여성에 대한 폭력행동과 관련된 태도들 중 하나가 성차별적 태도인데, 이는 성에 기초한 부정적 태도나 행동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보편적으로 성차별적 태도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의미하여, 편파적인 태도와 행동을 유발하는 여성에 대한 적대감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최근에 성차별적 태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현대에도 성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존재한다(Spence & Hahn, 1997; Flynn, 1990).

성차별적 태도가 이성에 대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적대적인 성차별주의가 여성에 대한 공격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정

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안귀여루, 2002). Flynn(1990)의 연구에서 성차별적 태도는 이성교제시 폭력행동을 한 대학생 집단과 하지 않은 대학생 집단을 유의하게 구분하는 변수였다. 안귀여루(2002)의 연구에서도 성차별적 태도 점수가 높은 남자 대학생일수록 이성교제에서 폭력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특히 성차별적 태도와 성적인 강요행동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2) 이성교제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실제 폭력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지목된다. 김용미와 김현옥(2000)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은 이성교제폭력이나 부부폭력에 대해 뚜렷하게 허용적이거나 부정적이기보다는 중도적 태도를 보였다. 고교생들은 이성교제나 부부폭력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아직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되었다.

다수의 선행연구가 폭력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가질수록 이성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김예정과 김득성(1999a), 장희숙과 조현각(2001)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신체적 폭력 행위 여부에 영향력이 큰 예측요인이었다. Heather와 Vangie(1997)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서도 폭력을 사용한 학생들은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폭력에 대해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허용도가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성차가 있음을 주장한 연구도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이성에게 폭력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Foshee et al, 2001; Stets & Pirog-Good, 1989). 반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경현과 이영자(2001)의 연구에서는 폭력허용도가 이성교제폭력의 예측요인이 아니었다.

3) 비행

청소년의 비행은 이성교제폭력과 관련될 것으로 예측되나 많이 연구되지는 않은 변수이다. 소수의 연구자들이 비행이 이성교제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보고했는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경현과 이영자(2001)의 연구결과, 학교폭력, 음주, 폭력적

컴퓨터 게임이 이성교제폭력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희숙(2002)의 연구에서 비행수준은 남녀 대학생의 이성교제폭력 경험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중인 21세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Magdol 외(1997)의 연구에서도 비행경력은 가해자의 특성 중 하나였다.

학교폭력이나 음주 등 청소년의 비행행동 중 일부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Riggs와 O'Leary(1989)는 이성교제폭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개념틀을 제시하면서, 주요 이성교제폭력성향 변인 중 하나로 학교폭력을 지목했다. 즉 학창시절에 친구와의 신체적 공격 경험이 이후 이성교제 파트너에 대한 폭력과 유의하게 관련된다는 것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예정과 김득성(1999b, 1999c)의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시절의 학교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여대생이 신체적 폭력 가해와 피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부모 간 폭력에의 노출

'부모 간 폭력에의 노출'이라고 명명되는 변수는 사회학습이론으로부터 비롯되며 '폭력의 세대 간 전달 가설'을 반영하는 것이다. 부모가 부부싸움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면, 자녀는 폭력행동을 갈등해결을 위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모방하게 되며, 따라서 부모 간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많으면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도 폭력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게 된다는 것이다(Bernard & Bernard, 1983; DeMaris, 1987; Markward, 1997). 부모 간 폭력에의 노출은 이성교제폭력과 부부폭력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왔다.

그러나 부모 간 폭력에의 노출과 이성교제폭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O'Keefe(1997)는 부모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49%가 교제 중 파트너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외의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 사이에서 행해지는 폭력에 노출되는 것이 이성교제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DeMaris, 1987; Foo & Margolin, 1995, Riggs et al., 1990; 서경현, 2002; 안귀여루, 2002). 반면 부모 간 폭력에의 노출이 이성교제폭력과 무관하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적지 않다(김예성, 김득성, 1999a; 장희숙, 조현각, 2001; Follette & Alexander, 1992; Riggs & O'Leary, 1996). 부모 간

폭력에의 노출과 이성교제폭력과의 관계가 이렇게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Kaufman과 Zigler(1987)는 부모 간 폭력에의 노출이 학자들이 가정하는 만큼 강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5)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

이성교제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원가족 폭력은 성장기 부모로부터 경험하는 신체적 폭력이다. 이 역시 갈등해결의 수단으로서 폭력에 대한 학습효과를 갖는데, Bandura(1977)는 폭력의 가족력 중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이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는 것보다 미래의 폭력 사용을 예측하는데 더 영향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 간 폭력에의 노출과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과 이성교제폭력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예정과 김득성(1999b), Ryan(1995), Foo와 Margolin(1995), Riggs와 O'Leary(1996)의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이성교제폭력 간의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 장희숙(2002)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경험이 대학생의 심각한 교제폭력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었으나 비행수준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현과 이영자(2001), 장희숙과 조현각(2001), O'Keefe(1997), Riggs 외(1996)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경험이 신체적 이성교제폭력의 경험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남성에게서만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과 이성교제폭력 사이의 강한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Marshall & Rose, 1988; Burke, Stets & Pirog-Good, 1988)가 있는 반면 여성에게서만 관련성을 보인 연구(Tontodonato et al., 1992)도 있다.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갖는다.

첫째, 고등학생의 이성교제폭력 경험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남학생의 이성교제폭력 가해, 피해, 쌍방경험의 예측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여학생의 이성교제폭력 가해, 피해, 쌍방경험의 예측요인은 무엇인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고교생이다. 학교유형과 지역을 고려하여 연구자들이 임의로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한 후 교사를 통해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학생들이 설문지를 읽고 스스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는 2003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총 1,393부 중 응답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196부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55.4%, 여학생이 44.6%로 남학생이 다소 많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연령은 만14세에서 19세까지의 십대 청소년인데, 특히 16, 17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유형은 인문계가 80.9%, 실업계가 19.1%로 인문계 고등학생이 많았다. 성적은 학생이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는 성적수준을 질문했는데, '중'이라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아서 전체의 53.1%이며, '상' 혹은 '하'라고 답한 학생이 각각 25.5%, 21.4%이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소득수준은 '중'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서 전체의 50.6%이고, '상'이나 '중상'이라고 답한 경우가 30.6%로 '하' 혹은 '중하'라고 답한 경우에 비해 많은 편이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항 목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662	55.4
	여	534	44.6
연령	14세	3	0.3
	15세	127	10.8
	16세	446	37.8
	17세	506	42.9
	18세	96	8.1
	19세	2	0.2

항 목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학교유형	인문계	968	80.9
	실업계	228	19.1
성적	상	301	25.5
	중	627	53.1
	하	253	21.4
소득수준	상	52	4.4
	중상	308	26.2
	중	596	50.6
	중하	156	13.3
	하	65	5.5

2.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이성친구 간의 신체적 폭력이다. 신체적 폭력 행위는 Straus(1990)의 Conflict Tactics Scale-R(CTS-R)의 문항을 사용하여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에는 '물건을 집어 던졌다' 등의 경미한 폭력으로부터 '칼(가위)이나 총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다'에 이르는 심한 폭력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을 구분하여 경험의 유무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가해경험 .642 피해경험 .707이었다. 신체적 폭력은 폭력경험없음(무경험집단), 가해경험만 있음(가해집단), 피해경험만 있음(피해집단), 가해 및 피해경험이 모두 있음(쌍방집단)의 네 범주로 구분된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다

(1) 성차별적 태도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elid(1978)와 Flynn(1990)의 성역할

에 대한 척도를 참고하여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표현으로 재구성하였다. '여자는 실력보다 외모가 더 중요하다', '자기주장이 강한 여자는 여자답지 못하다' 등 9개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차별적 태도가 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672로 나타났다.

(2) 이성교제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교제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argolin과 Foo(1992)의 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JVS)을 활용하였다. JVS는 총 8문항이며 남녀 간에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해서 신체적 폭력이 행사될 수 있는 있다고 여기는 정도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 '헤어지겠다고 위협해서 때린다', '다투다가 이성친구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때린다' 등이며, '절대 그럴 수 없다ㅊ에서 '매우 그럴 수 있다'까지의 4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행사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83으로 나타났다.

(3) 비행

청소년의 비행은 김준호와 김순영(1995), 이창호 외(2002)의 연구를 참조하여 폭력비행, 약물비행, 가출, 성비행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93으로 나타났다.

(4) 부모 간 폭력에의 노출

부모 간 폭력에의 노출은 MacEwen과 Barling(1988)의 척도와 CTS를 활용하여 사용한 경우를(안귀여루, 2002) 참고하여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밀치거나 뺨을 때렸다'와 같은 신체적 폭력행위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사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지 물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간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38이었다.

(5)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 경험은 CTS-R을 활용하여서 구성하였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경험이 많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84로 나타났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다.

(1) 연령: 만 나이
(2) 학교유형: 인문계(0), 실업계(1)의 더미변수
(3) 성적: 최근 성적에 대한 자기보고로 '평균 50점 이하'로부터 '91점 이상'의 6개 범주로 구성

3. 분석 방법

빈도분석을 수행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찰하고, 신체적 폭력의 발생빈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종속변수의 범주가 두 개보다 많을 때 사용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남, 여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서 신체적 폭력경험을 예측하는 요인을 고찰하였다. 폭력경험이 없는 집단을 기준범주로 하여 가해집단, 피해집단, 쌍방집단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신체적 폭력 실태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신체적 폭력 가해 또는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의 22.6%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고등학생 100명 중 23명 가량은 이성 친구에게 신체

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신체적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성교제폭력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신체적 폭력 실태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는 것과 같은 경미한 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고 발로 차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심각한 폭력은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였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은 '세게 밀침'으로서 조사대상자의 17.5%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심각한 폭력으로 간주되는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폭력도 11.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정없이 마구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경우도 각각 2.8%로 나타났고, 무기가 동원된 경우도 1.1%로 조사대상자 중 13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신체적 폭력발생률

항 목	사례수(N)	발생률(%)
물건을 집어던짐	117	10.4
세게 밀침	197	17.5
손바닥으로 뺨을 때림	90	7.5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림	131	11.7
물건(혁대, 몽둥이, 야구방망이)으로 때림	11	1.0
사정없이 마구 때림	31	2.8
목을 조름	31	2.8
무기의 사용	13	1.1

신체적 폭력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남녀 학생들의 폭력경험을 전체폭력, 경미한 폭력, 심한 폭력으로 나누고, 경험없음, 가해, 피해, 쌍방경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경미한 폭력에는 물건을 집어던짐, 세게 밀침, 손바닥으로 뺨을 때림이, 심한 폭력에는 발로 차거자 주먹으로 때림, 물건으로 때림, 사정없이 마구 때림, 목을 조름, 무기의 사용이 포함된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먼저 전체 폭력에 있어서는, 가해경험과 쌍방경험에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경험율을 보였다. 특히 일방적인 가해경험을 보고한 여학생의 비율은 남학생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방적인 피해경험은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경미한 폭력의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여학생이 남학생

에 비해서 훨씬 많은 아서 2배 이상이었다. 반면, 일방적인 피해경험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쌍방경험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한 폭력의 경우에는, 가해경험과 쌍방경험에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크게 높은 경험율을 보였다. 특히 일방적인 가해경험을 보고한 여학생의 비율은 남학생보다 2.5배 정도 높았다. 일방적인 피해경험은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여학생의 경미한 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있어서 모두 일방적인 가해나 피해경험에 비해 쌍방경험이 훨씬 높게 나타나서 고등학생의 이성 간 신체적 폭력은 상호적인 양상이 뚜렷하다고 하겠다.

<표 3> 성별에 따른 폭력경험

N(%)

폭력경험	전체 폭력		경미한 폭력		심한 폭력	
	남	여	남	여	남	여
경험없음	488(77.5)	334(66.4)	501(80.2)	355(71.3)	564(90.4)	413(82.9)
가해경험	33(5.2)	56(11.1)	29(4.6)	55(11.0)	16(2.6)	31(6.2)
피해경험	38(6.0)	27(5.4)	40(6.4)	18(3.6)	20(3.2)	18(3.6)
쌍방경험	71(11.3)	86(17.1)	55(8.8)	70(7.2)	24(3.8)	36(7.2)

2. 신체적 폭력경험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 고찰

1) 남학생의 신체적 폭력 경험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남학생의 신체적 폭력 경험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체 모형의 적합도는 -2LL값이 859.677(chi-square=71.734, p<.001)로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Nagelkerke R2값은 .141로 나타났는데, 이는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남학생의 신체적 폭력경험의 14.1%가 설명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4〉는 독립변수들의 개별적 효과에 대한 검정의 통계적 유의도를 가능도비 검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이다. 성차별적 태도, 부모 간 폭력에의 노출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폭력에 대한 허용도, 비행,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은 남학생의 신체적 폭력 경험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표 4> 독립변수 개별적 효과에 대한 가능도비 검정 : 남학생

	-2LL	Chi-square(df)	p
Intercept	864.461	4.784(3)	.188
성차별적 태도	861.509	1.832(3)	.608
폭력허용도	884.628	24.951(3)	.000***
비행	873.974	14.297(3)	.003*
부모 간 폭력 노출	860.585	.908(3)	.824
부모의 신체폭력	869.877	10.200(3)	.017*

* p<.05, *** p<.001

독립변수 값의 변화에 따른 이성친구에 대한 신체적 폭력 발생 확률의 변화를 알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분석의 계수와 승산비(odds ratio)를 검토하였다. 회귀분석 모형에는 상수가 있지만, 상수는 승산비가 없으므로 표에 계수만 포함되었다. 〈표 5〉는 남학생의 경우에, 신체적 폭력 경험이 없는 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가해, 피해, 쌍방 경험에 대한 독립변수의 계수와 승산비를 나타낸다.

신체적 폭력 가해집단은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이 관련 있었다. 즉, 신체적 폭력 경험이 없는 남학생에 비하여 가해 경험이 있는 남학생이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승산비가 1.274이므로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경험이 한 단위 정도 증가할수록 남학생이 이성친구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1.274배 증가되었다.

피해집단에서는 비행이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비행이 한 단위 증가하면 피해집단에 속할 확률이 1.25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방집단은 폭력에 대한 허용도, 비행,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이 관련 있었다. 남학생의 폭력허용도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쌍방집단에 속할 확률은 3배 증가하고, 비행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1.24배 증가하며,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1.19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다항 로지스틱 분석에 의한 모형의 모수 추정치 : 남학생

계수(승산비)

독립변수	신체적 폭력 경험		
	가해	피해	쌍방
Intercept	-6.533	-3.695	-4.113
성차별적 태도	.045(1.046)	.570(1.768)	-.407(.666)
폭력허용도	.618(1.856)	-.033(.968)	1.099(3.000)***
비행	.072(1.074)	.231(1.259)*	.215(1.240)**
부모 간 폭력에의 노출	-.027(.973)	.021(1.022)	.094(1.099)
부모의 신체적 폭력	.242(1.274)*	.077(1.080)	.179(1.196)*

* p<.05, ** p<.01, ***p<.001,
경험없음이 기준집단임

2) 여학생의 신체적 폭력 경험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여학생의 신체적 폭력 경험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체 모형의 적합도는 -2LL값이 871.856(chi-square=66.836, p<.001)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Nagelkerke R2값은 .151로서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여학생의 이성친구에 대한 신체적 폭력 경험의 15.1%가 설명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6〉은 독립변수 개별적 효과에 대한 검정의 통계적 유의도를 가능도비 검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이다. 성차별적 태도, 폭력허용도, 비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부모 간 폭력에의 노출,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6> 독립변수 개별적 효과에 대한 가능도비 검정 : 여학생

	-2LL	Chi-square(df)	p
Intercept	880.197	8.341(3)	.039
성차별적 태도	880.689	8.833(3)	.032*
폭력허용도	887.981	16.125(3)	.001**
비행	880.696	8.840(3)	.031*
부모 간 폭력 노출	873.595	1.739(3)	.628
부모의 신체폭력	875.552	3.696(3)	.296

* p<.05, ** p<.01

독립변수 값의 변화에 따른 여학생의 이성친구에 대한 신체적 폭력 경험 확률의 변화를 알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분석의 계수와 승산비를 검토하였다. 〈표 7〉은 여학생에 대하여 신체적 폭력 경험이 없는 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가해, 피해, 쌍방 경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계수와 승산비를 나타낸다.

<표 7> 다항 로지스틱 분석에 의한 모형의 모수 추정치 : 여학생

계수(승산비)

독립변수	신체적 폭력 경험		
	가해	피해	쌍방
Intercept	-11.085*	-3.821	-2.391
성차별적 태도	-1.256(.285)*	.990(2.692)	-.447(.640)
폭력허용도	.795(2.215)***	-.044(.957)	.731(2.078)**
비행	.249(1.283)**	.091(1.095)	.194(1.214)*
부모 간 폭력에의 노출	-.126(.882)	-.139(.870)	-.036(.965)
부모의 신체적 폭력	.149(1.161)	.061(1.062)	.094(1.099)

* p<.05, ** p<.01, ***p<.01
경험없음이 기준집단임

신체적 폭력 가해집단은 성차별적 태도, 폭력허용도, 비행이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성차별적 태도가 한 단위 감소할수록, 즉 성차별적 태도를 적게 가질수록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285배 증가했으며,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한 단위 증가하면 2.215배, 비행이 한 단위 증가하면 1.283배 증가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수들 중 여학생의 이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 피해와 관련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방집단은 폭력허용도, 비행이 관련 있었다. 여학생의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쌍방집단에 속할 확률은 2.078배 증가하고, 비행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1.214배 증가하였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성친구에 대한 신체적 폭력 실태와 예측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이성교제폭력 예방 및 개입에 근거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는 서울시의 인문계와 실업계 고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1,196명으로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남녀 청소년의 이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성차별적 태도, 폭력허용도, 비행, 부모 간 폭력에의 노출,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 등이 남녀 청소년의 이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 가해, 피해, 쌍방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이 전체의 22.6%로 나타났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에서 폭력발생률이 20%-50%로 보고되었고, 일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11.9%,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만을 포함한 국내 연구에서 29.1-41.9%, 외국 연구에서는 9%-59% (김용미·김현옥, 2000; 서경현, 2002; Jezl 외, 1996) 수준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이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문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신체적 폭력경험율을 보였다. 특히 경미한 폭력 뿐 아니라 심한 폭력에 있어서도 여학생의 일방적인 가해경험이나 쌍방폭력 경험이 남학생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와는 달리 이성교제관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폭력적이라는 최근의 연구결과들에 부합하는 것이다 (서경현, 2002; 장희숙·조현각, 2001; Foshee, 1996; O'Keefe, 1997; Capaldy & Clark, 1998; O'Keefe & Treister, 1998; Halpern et al., 2001). 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보고율에 있어서 성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DeMaris, 1987; Stets & Henderson, 1991; 장희숙·조현각, 2001)로 미루어 볼 때 남학생이 폭력을 최소화하여 인식하거나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여학생의 폭력행동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일방적인 가해나 일방적인 피해에 비해 쌍방경험의 비율이 높았다. 높은 상호폭력율을 보고한 기존연구들(김용미, 1996; 김예정·김득성, 1999a;

Stets & Henderson, 1991; White & Koss, 1991; Gray & Foshee, 1997)과 유사한 결과로, 남성이 주요 가해자인 부부폭력과는 달리, 청소년의 이성교제폭력은 상호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이 재차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폭력 가해경험이나 피해경험의 유무를 기준으로 이분법적인 비교를 수행하는데 비해, 본 연구는 폭력경험이 없는 집단, 가해경험만 있는 집단, 피해경험만 있는 집단,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쌍방집단의 네 경우를 동시에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성교제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폭력허용도, 비행,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이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폭력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는 남학생이 이성교제폭력 쌍방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며, 비행은 피해집단과 쌍방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고,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은 가해집단과 쌍방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다. 여학생의 경우, 성차별적 태도, 폭력허용도, 비행이 영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별적 태도는 가해집단에, 폭력허용도와비행은 가해집단과 쌍방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다.

남녀학생에게 공통적으로 영향력 있는 이성교제폭력의 예측요인은 폭력허용도와 비행이다. 남학생에게만 유의한 요인은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이며, 여학생에게만 유의한 요인은 성차별적 태도이다. 청소년의 이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서 본 연구에서 예측요인을 성별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은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이성교제폭력에 대한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사정에 있어서 성차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예측요인별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성차별적 태도는 여학생의 가해경험의 예측요인이다. 폭력허용도는 남학생의 쌍방경험, 여학생의 가해경험과 쌍방경험의 예측요인이다. 비행은 남학생의 피해경험과 쌍방경험, 여학생의 가해와 쌍방경험의 예측요인이다.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은 남학생의 가해경험과 쌍방경험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성차별적 태도는 흔히 남성의 여성에 대한 공격성을 높일 것으로 예측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의외로 남학생의 폭력경험과는 무관한 반면, 여학생의 가해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주목된다. 여학생이 성차별적 태도를 적게 가질수록 이성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즉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가

확고할수록 이성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이는 남녀평등을 중시하는 여학생의 경우, 폭력이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남성의 폭력에 대한 반응이나 자기보호의 방편이 아니라 본인이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폭력이 남녀평등을 강화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남성 뿐 아니라 여성도 폭력을 갈등해결의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이성교제폭력에 대한 예측요인이 아니었으나(서경현·이영자, 2001) 본 연구에서는 남녀 학생의 가해와 쌍방경험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 기존 연구결과(김예정·김득성, 1999a; 장희숙·조현각, 2001; Heather & Vangie, 1997; O'Keefe, 1997)에 부합되는 것으로 폭력에 대한 태도가 실제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교육하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대상의 폭력교육이 활발하지 못하고, 그나마 학교폭력에 치중하는 실정인데, 이를 강화하고 이성교제폭력과 가정폭력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비행 역시 남녀 모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Riggs와 O'Leary의 이성교제폭력 모델이나 학교폭력, 음주 등의 청소년 비행행동이 이성교제폭력의 예측요인이라는 기존연구들(서경현·이영자, 2001; 장희숙, 2002; Magdol, 1997)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나 가출 등의 청소년 비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저연령화되는 최근 경향으로 미루어 청소년 교육과 선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비행 예방 및 교정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건강한 이성관계와 폭력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비행은 남학생의 경우에는 피해와 쌍방경험의 예측요인인 반면, 여학생에게는 가해와 쌍방경험의 예측요인으로 남녀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개입 과정에서 성차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 간 폭력에의 노출은 남녀 모두에서 이성교제폭력의 예측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은 남학생에게는 이성교제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는 남성에게서만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과 이성교제폭력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한 기존연구들(Marshall & Rose,

1988; Burke, Stets & Pirog-Good, 1988)을 지지하는 것이다. 원가족에서의 폭력경험에 대해 포괄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본 연구에서는 그 영향력이 예상보다 적었으며, 이는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원가족에서의 폭력경험을 이성교제폭력의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 중 하나로 여겨온 기존의 주장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Kaufman과 Zigler(1987)가 원가족 폭력과 이성교제폭력의 관계가 학자들이 가정하는 만큼 강하지는 않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이성교제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청소년의 이성교제폭력이 이미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뜻한다. 이성관계에 대해 더 개방되어가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청소년 이성교제폭력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방송이나 인터넷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를 통하여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이성교제폭력을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남녀 청소년의 가해, 피해, 쌍방경험에 대한 예측요인이 반영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우, 고려된 예측요인들 중 피해경험집단에게 유의한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여학생의 일방적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이성교제폭력은 상호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폭력 발생 상황과 전개과정을 심도있게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등 다양한 방법의 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김예정, 김득성(1999a). 데이팅관계에서 폭력집단의 특성과 신체적 폭력 발생의 맥락.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4권 제2호, pp. 187-211.

김예정, 김득성(1999b). 대학생들의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I)-가해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제10호, pp. 27-42.

김예정, 김득성(1999c). 대학생들의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II)-피해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7권 제3호, pp. 187-202.

김용미(1996). 미혼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제1호, pp. 187-197.

김용미, 김현옥(2000). 고교생의 이성교제 중 신체적, 심리적 폭력사용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12권 제3호, pp. 183-194.

김재엽(1998). 가정폭력의 태도와 행동 간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가족복 지학, 제2권, pp. 87-114.

김준호, 김순영(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 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경현, 이영자(2001). 고등학생들의 연애폭력에 대한 예측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7권 제2호, pp. 91-106.

서경현(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8권 제2호, pp. 1-15.

안귀여루(2002). 이성교제 폭력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9권, pp. 55-75.

이영숙(1998). 이성교제 중 발생한 폭력.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제4호, pp. 49-61.

이영숙(1999). 이성교제 단계에 따른 폭력 발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4권 제2호, pp. 119-133.

이창호, 권해수, 조은경(2002). 폭력가정의 아이들 실태분석. 한국청소년상담원.

장희숙·조현각(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 제8권, pp. 177-202.

장희숙(2002). 부모의 폭력 및 지지행동이 이성교제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0권, pp. 131-155.

정혜정(2003).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팅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3호, pp. 73-91.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New York: General Learning Press.

Berke, P. J., Stets, J. E., & Pirog-Good, M. A.(1988). Gender identity, self-esteem and physical and sexual abuse in dating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Vol. 53, pp. 272-285.

Bernard, N. & Bernard, J.(1983). Violent intimacy: The family as a model for love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Vol. 32, pp. 283-286.

Capaldy, D. & Clark, S.(1998). Prospective family predictors of aggression toward female partners for at-risk young me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4, pp. 1175-1188.

Demaris, A.(1987). The efficacy of a spouse abuse model in accounting for courtship viol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8, pp. 91-305.

Dryfoos, J.(1990). *Adolescents at Risk: Current Prevalence and Interven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elid, H. S.(1978). Attitudes toward rape: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e, rapist, crisis counselors and citize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 36, pp. 156-179.

Flynn, C. P.(1990). Sex roles and women's response to courtship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5.

Follette, V., & Alexander, P. C.(1992). Dating violence: current and historic correlates. *Behavioral Assessment*, Vol. 14, pp. 39-52.

Foshee, V.(1996).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ating abuse prevalence, types and injuries. health education Research, Vol. 11 No. 3, pp. 275-286.

Foshee, V. A., Linder, G. F., MacDougall J. E. & Bangdiwala, S.(2001). Gender differences in the longitudinal predictors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Preventive Medicine*, Vol. 32, pp. 128-141.

Foo, L. & Margoline, G.(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10 No. 4, pp. 351-377.

Gray, H. & Foshee, V.(1997). Adolescent dating violence: Differences between one-sided and mutually violent profi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12 No. 1, pp. 126-141.

Halpern, C. T., Oslak, S. G., Young, M. L., Martin, S. L. & Kupper, L. L.(2001). Partners violence among adolescents in opposite-sex romantic relationships: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91, pp. 1679-1685.

Heather, M. G. & Vangie, F.(1997). Adolescent dating violence: Differences between one-sided and mutually violent profi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12 No. 1, pp. 126-141.

Henton, J. M., Cate, R. M., Koval, J., Lloyd, S. & Christopher, F. S.(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Vol. 4 No. 3, pp. 467-482.

Jezl, D., Molider, C. & Wright, T.(1996). Physical, sexual and psychological abuse in high school dating relationship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Vol. 13 No. 1, pp. 69-87.

Kaufman, J., & Zigler, E.(1987). Do abused children become abusive par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57, pp. 186-192.

MacEwen, K. E. & Barling, J.(1988). Multiple stressors, violence in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aggression: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3 No. 1. pp. 73-87.

Magdol, L., Moffite, T. E., Caspi, A., Newman, D. L., Fagan, J. & Silva, P. A.(1997). Gender differences in partner violence in a birth cohort of 21-year-old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5 No. 1, pp. 68-78.

Magdol, L., Moffite, T. E., Caspi, A. & Silva, P. A.(1998). Hitting without a license: Testing explanations for differences in partner abuse between young adult daters and cohabi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0, pp. 41-55.

Margolin, G. & Foo, L.(1992). *The attitude about dating scale.* Unpublished measure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akepeace, J. M.(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Vol. 30, pp. 37-102.

Makepeace, J.(1983). Life events stress and courtship violence, *Family Relations*, Vol. 32, pp. 101-109.

Markward, M.(1997). The impact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 *Family in Society*. pp. 66-70

Marshall, L. L. & Rose, P.(1988). Family of origin and courtship violen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66, pp. 414-418.

Miller, J. & White, N. A.(2003). Gender and adolescent relationship violence: A contextual examination. *Criminology,* Vol. 41 No. 4, pp. 1207-1248.

O'Keefe, M.(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12 No. 4, pp. 546-568.

O'Keefe, M & Treister, L.(1998). Victim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Are the predictors different for males and females? *Violence Against Women*, Vol. 4, pp. 195-223.

Riggs, D. S. & O'Leary, K. D. (1989). A theoritic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In Stets J. E. & Pirog-Good M. A.,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New York: Praeger.

Riggs, D. S. & O'Leary, K. D.(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11 No. 4, pp. 519-540.

Riggs, D. S., O'Leary, K. D. & Breslin, F. C.(1990). Multiple correlates of physical aggression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5 No. 1, pp. 229-240.

Roscoe, B. & Benaske, N.(1985). Courtship violence experienced by abused wives. *Family Relations*, Vol. 34, pp. 419-424.

Roscoe, B. & Callahan, J.(1985). Adolescents' self-report of violence in families and dating relations. *Adolescence*, Vol. 20, pp. 545-554.

Spence, J. T. & Hahn, E. D.(1997). The Attitude toward women scale and attitude change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

2 No. 1, pp. 17-34

Stets, J. E. & Henderson, D. A.(1991). Contextual factors surrounding conflict resolution while dating: Result form a natio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0, pp. 29-36.

Stets, J. & Pirog-Good, M. A.(1989). Patterns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for men and women in dating relationships: A descriptive analysis,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4 pp. 63-76.

Straus, M. A. & Gelles, R. J.(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New Burnswick: Transaction Publications.

Tontodonato, P., & Crew, B. K.(1992). Dating violence, social learning theory, and gender: A multivariate analysis. *Violence & Victim,* Vol. 7, pp. 3-14.

White, J. W. & Koss, M. P.(1991). Courtship violence: Incidence in a national sample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Violence and Victims*, Vol. 6, pp. 247-256.

ABSTRACT

The Prevalence and the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Yang, Hae-Won* · Shin, Hye-Seop**

This study examined the prevalence and the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by high school students. As the results, 22.6% of adolescents reported to have been perpetrators or victims of physical violence at least once in their relationships with opposite-sex friends. The violence rates of female students were higher than male. The rate of bidirectional experience was higher than perpetrating or victimizing only experience. The predictors of physical violence were different by gender. Gender role attitude was a predictor of female's perpetrating, justification of violence was male's bidirectional and female's perpetrating and bidirectional, delinquency was males' victimizing and bidirectional and female's perpetrating and bidirectional, being physically abused by parents was male's perpetrating and bidirectional experience.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with regard to raising adolescents welfare interven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dating violence, gender role attitude, justification of violence, delinquency, exposing parental violence, child abuse

투고일 : 3월 9일, 심사일 : 6월 7일, 심사완료일 : 6월 20일

* Chongshin University
** Dongduk Women's University